

---

碩士學位論文

活動中心의 英語 抑揚指導法

指導教授 金 鍾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李 光 子

1998年 8月

# 活動中心의 英語 抑揚指導法

指導教授 金 鍾 勳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李 光 子



李光子の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8年 7月 日

審査委員長 김성택  
審査委員 김종훈  
審査委員 현완송

抄錄

## 활동 중심의 영어 억양지도법

이 광 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종 훈

한 때 우리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신장을 위한 여러 교수법이 등장하면서 발음지도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전달되는 문장의 의미 파악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의사소통이란 개념을 오로지 언어형식(language forms)보다 언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간주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만 영어교육을 하다보니 발음에 대한 교육은 영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발음은 구두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대방과 대화시 의미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심지어 의미를 바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영어의 문장을 발화했을 때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영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 발음에 대한 지도는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배양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발음교육의 방향은 종전과는 다르게 설정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지도, 즉 분절음(segmentals)위주의 발음지도에서 벗어나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 등의 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어에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특성상 분절음이라기 보다는 초분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음지도를 할 때는 이진처럼 발음 그 자체만을 훈련시키는 교육을 하지 말고, 문장이나 대화를 익히는 동안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습득되도록 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제시한 효과적인 억양 지도 활동으로는 기본 억양 형태를 지도하는 활동, 의미 변화 기능을 이해시키는 활동, 정보 초점 찾기 지도 활동, 대화를 이용한 억양지도 활동, 게임을 활용한 지도 활동, 챈트와 노래를 통한 지도 활동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교실에서 활동중심으로 억양을 지도한 후 필자가 가르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활동 중심의 억양 지도법은 영어의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어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부수적으로 신장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음이 밝혀졌다.

\* 본 논문은 199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억양의 정의	3
2. 억양의 내부 구조	7
3. 강세 및 리듬과의 관계	8
4. 억양의 다양한 기능	10
1) 정보적 기능	11
2) 발화 지속 판단 기능	11
3) 문장 구조 이해 기능	12
4) 문법적 기능	13
5) 태도적 기능	13
6) 담화적 기능	15
7) 지표적 기능	15
8) 의미 변화 기능	15
III. 교실에서의 억양 지도 활동	17
1. 기본 억양 형태 지도	17
2. 의미 변화 기능 이해 지도	22
3. 정보초점 찾기 지도	28
4. 대화를 이용한 지도	31
5. 게임을 활용한 지도	34
6. 챗트 및 노래를 통한 지도	43
IV. 억양 지도 활동의 결과	46
1.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46
2. 억양 지도 대상과 방법	48
3. 억양 지도 효과 분석	49
V. 결론	54
참고 문헌	56
Abstract	58

# I. 서 론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위치는 지구촌 사람들의 만남이 빈번해짐에 따라 더 확고해지고 있다. 이제 영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존의 언어 (survival English)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세계어로서 영어를 배우는데 투자하는 수많은 시간과 비싼 경비 및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어의 모국어 화자 (native speaker)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영어 발화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영어가 우리말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다. 즉, 영어는 음절(syllable)이 중심을 이루는 한국어와는 달리, 강한 요소와 약한 요소가 번갈아 나타나며 리듬을(rhythm)을 형성하는 강세 박자언어 (stress-timed language) 이기 때문이다.

한 때 우리의 영어 교육 현장에서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신장을 위한 여러 교수법이 등장하면서 발음지도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전달되는 문장의 의미 파악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의사소통능력이란 개념을 오로지 언어형식( language forms) 보다 언어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라 간주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만 영어교육을 하다보니 발음에 대한 교육은 영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발음은 구두의사소통 (oral communication)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대방과 대화시 의미를 명확히 결정하거나 심지어 의미를 바꾸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영어의 문장을 발화했을 때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영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 발음에 대한 지도는 다시 새롭게 조명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배양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발음교육의 방향은 종전과는 다르게 설정 되어 있다고 본다.

우선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성지도, 즉 분절음(segmentals)위주의 발음 지도에서 벗어나 강세(stress)와 억양(intonation) 등의 지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어에서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특성상 분절음이라기 보다는 초분절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발음지도를 할 때는 이전처럼 발음 그 자체만을 훈련시키는 교육을 하지 말고 문장이나 대화를 익히는 동안 자연스럽게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습득되도록 해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어의 초분절음인 억양을 지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찰하겠다. 학습자 중심의 교실 활동 (activities)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면서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법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영어의 억양의 정의와 구조 및 기능에 대해 검토하겠다. 제3장에서는 학습자위주의 교실활동을 하며 영어의 억양을 지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겠다. 제 4장에서는 이런 지도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5장은 결론이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억양의 정의

영어에서 억양은 Jones(1959)가 지적한대로 연결된 말에서 소리의 높이 (pitch)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sup>1)</sup> 영어의 화자들은 발화시 좀처럼 단일음조(monotone)로 발음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음조로 발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음의 다양한 변화가 곧 억양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음의 높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분이나 심리상태에 따라서도 음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확히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가령 사람들은 보통의 대화를 나눌 때보다는 일반적인 진술을 할 때가 더 소리의 변화가 없으며, 진지한 기분일 때보다 흥분되었을 때가 더 높은 소리로 발음함으로써 소리의 높이가 광범위함을 예견케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영어음성학에서는 편의상 소리의 높이를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분석한다. 즉,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소리의 높이가 제일 낮은(low)것은 1로, 보통의 정상적인(mid)인 소리 높이는 2로, 높은(high)소리는 3으로, 가장 높은 (extra-high)소리는 4로 나타낸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1) 일반적인 음도의 구분<sup>2)</sup>

2 normal ( where the voice most often is )

3 high ( where the voice usually rises to at the

1) Jones, D (195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 Heffer & Sons p. 275.

2) S. A. Hagen & P. E. Grogan, *Sound advantage*, New Jersey : Prentice Hall, p. 128.

intonation focus )

1 low ( where the voice falls to at the end of most types of sentence )

4 very high ( the voice rises to show stronger emotion such as surprise, disbelief, fear, excitement )

이들 음의 높이는 상호 결합하여 구나 문장 위에 의미 있는 멜로디 (meaningful melodies)를 만들게 되는데, 이 멜로디가 문장의 끝에서 말미연접(terminal junctures)을 가짐으로써 여러 다양한 억양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의 억양은 구나 문장 위에 1, 2, 3, 4로 표시되는 소리의 높이(pitch)에 따라 말미연접이 결합됨으로써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영어의 기본 억양 유형을 보면, 가장 흔한 유형으로 “231”유형(rising-falling intonation)을 들 수 있다.

(2) 상승하강조 억양

a. 평서문 It's cold in here. 2-3-1

b. 명령문 Leave the door open. 2-3-1

c. wh-의문문 Where can we recycle it? 2-3-1

위의 세 예문의 발화를 보면 소리의 높이가 문장 주요 강세에서 올라갔다가 점차 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음도가 내려올 때는 대부분 화자의 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을 “상승 하강”유형이라 한다. 이 유형은 평서문이나 명령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흔히 나타난다. 이 유형은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므로 학습자들이 숙달하여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상승-하강 유형 못지 않게 영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억양유형은 “233”(rising intonation)유형이다.

(3) 상승조의 억양

- a. Yes/no 의문문      Did you pay the bill ?      2-3-3
- b. 요청하기              Could you pass the salad ?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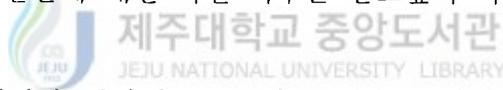
위 예문들의 발화를 보면 소리의 음도가 문장 주요 강세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계속 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유형은 Yes/no로 대답하는 의문문과 요청하는 뜻의 문장에서 쓰인다. 이러한 유형은 어떤 정보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때나 의심을 나타낼 때 이용된다.

물론 단순한 평서문도 끝을 올림으로써 yes-no를 요구하는 의문문과 같은 억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억양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를 가져온다. 아래 예문을 검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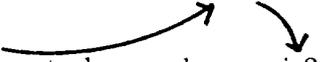
(4) a. She's a doctor .

b.  She's a doctor?

위 첫 문장을 보통의 억양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둘째 문장처럼 상승 억양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서술문이 아니라 청자로부터 그 서술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고 싶어 하거나 놀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억양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또 다른 경우는 선택의문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 (5)
- a.  Do you want cheesecake or pie?
  - b.  Do you want cheesecake or pie?

위 두 문장은 똑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5 a) 문장의 억양으로 발화하면 화자는 청자에게 후식을 원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내용이 되나 (5 b)의 억양으로 말한다면 화자는 청자가 후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

고 있으나 치즈케이크와 파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된다.

한편 부가 의문문(tag question)의 경우에도 말미상승하강 억양 형태와 말미상승 억양의 두 유형으로 쓰인다. 그 유형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자.

(6)

a. Bill has eaten, hasn't he?

b. Bill has eaten, hasn't he?

화자가 (6 a)의 억양으로 말할 땐 그는 Bill이 식사를 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6 b)의 억양으로 말한다면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말에 동의해줄 것을 기대함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억양에는 이외에도 계속하여 음도가 올라가는 억양형태 (continuation rise)가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7) Susan bought a new sweater, new shoes, and a new dress.

위 문장을 발화할 때는 소리의 음도는 점점 올려서 해야 한다. 이것은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마지막 명사에 가서 음도는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열거문과 중문이나 복문에 나타난다.

이처럼 영어의 억양은 문장의 종류나 문맥에 따라, 사람의 태도나 감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억양을 잘 알지 못하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억양유형을 습득하게 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억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 3장 억양지도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2. 억양의 내부 구조

억양의 내부 구조는 억양의 자질 자체가 소리 효과라는 점에서, 통사적 입장과는 다른 음운적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억양의 단위는 성조 단위 (tone unit)이며, 성조 단위(tone unit)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음보(foot)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음보는 하나의 강세 음절(stressed syllable) 과 임의적으로 따라오는 비강세음절(unstressed syllable)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음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음소 (phoneme)로 이루어진다<sup>3)</sup>. 예를 들면, Thank you for / giving me such a / wonderful / time // 라는 문장에서는 37개의 음소, 12개의 음절, 4개의 음보, 4개의 성조 단위를 찾을 수 있다.

영어의 성조 단위는 다음과 같은 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괄호 속의 것들은 성조 단위를 형성할 때 꼭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요소이다.

(8) (pre-head ) (head) nucleus (tail)

위 구조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 nucleus)이다. 핵은 성조 단위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넓게 말해 하나의 성조 단위에서 가장 잘 들리는 음절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것을 성조 음절(tonic syllable)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 성조 음절은 성조 그룹(tonic group)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내용어의 강세 음절이 된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성조 그룹으로 이루어진 다음 문장을 보자.

(9) The girl / gave the money / to her father.

이 문장에서 girl, money, father는 강세를 받고 있는데 성조 음절은 바로 이들 단어 중 강세를 받는 음절을 나타낸다.

---

3) 김종훈(1997), 「영어음운론」, 서울 : 한신문화사, p. 236.

성조 음절 앞에는 성조 단위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머리(head)가 있다. 머리는 첫 강세 음절부터 성조 음절 바로 앞에 오는 음절까지를 의미한다. 위 문장에선 gave the가 머리가 된다.

머리 앞(pre-head) 요소는 머리가 있는 경우는 그 앞 요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나 머리가 없는 경우라도 첫 강세 음절 앞에 나타나는 모든 비강세 음절을 나타낸다.

위 문장에서는 The girl에서 The 가 머리 앞 요소이며, to her father에서는 to her가 머리 앞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꼬리(tail)는 성조 음절 다음에 나오는 음절들을 의미한다. 위 문장에서는 money의 둘째 음절과 father의 둘째 음절이 꼬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소리의 높이는 하강 억양일 경우 머리 앞 요소에서는 낮으며, 머리에서는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핵에 이르러 가장 높아진 후, 꼬리에 이르면서 다시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물론 상승 억양인 경우는 핵에서의 높이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 3. 강세 및 리듬과의 관계

영어는 강세 음절과 비강세음절이 서로 번갈아 나타남으로써 리듬을 이루는 언어이다. 이른바 강세 박자 언어인 영어에서는 강세를 받는 음절의 수가 몇이냐에 따라 문장을 발음하는 시간이 결정된다. 가령 영어의 두 문장은 중간에 아무리 비강세 음절이 많이 위치한다 할지라도 강세 음절의 수만 같으면 동일한 길이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 |            |     |            |
|------------|-----|------------|
| (10) Birds | eat | worms.     |
| Thebirds   | eat | worms.     |
| Thebirds   | eat | the worms. |

Thebirds will eat the worms.

Thebirds will have eaten the worms.<sup>4)</sup>

위 문장에서는 'birds', 'eat', 'worms'가 강세를 받는 단어들이다. 그 문장들은 아래로 올수록 길어지고 있지만 각 문장을 발화하는 시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왜냐하면 각 문장에는 강세를 받는 단어의 수가 똑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문장에 있는 비강세 음절들은 약화시키거나 축약시켜 빨리 발음하며 첫 문장과 발화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Gimson(1980)은 등시간격성(isochronism)이라 한다.

이런 점에서 영어의 억양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강세가 기본이 되는 리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Paulston & Bruder(1976)도 강세는 보통 억양 곡선(intonation contour)의 가장 높은 소리 높이(pitch)와 일치하기 때문에 강세연습을 억양과 분리시켜 별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sup>5)</sup>

영어의 리듬구성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한 요소와 약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에서는 강세 음절 다음에 곧바로 강세 음절이 연결되거나, 비강세 음절 다음에 곧이어 비강세 음절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피한다. 즉, 강강의 구조나 약약의 구조가 됨으로써 강세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컨대 영어의 표현 'men and women' 이나 'Ladies and gentlemen'은 가능하지만 'women and men', 'gentlemen and ladies'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영어의 리듬상 전자처럼 나타날 때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후자처럼 표현하면 'women and men'에서는 리듬이 강약약강의 구조가 되고,

4) A. C. Gimson(1980),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 Edward, p. 259.

5) C. B. Paulston & M. N. Bruder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ambridge : Winthrop Publishers, p.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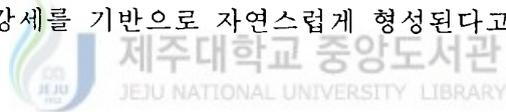
'gentlemen and ladies'에서는 강약약약강약의 구조가 되어 같은 리듬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지만, 전자의 표현에서는 각기 강약강약의 구조와 강약약강약의 구조가 됨으로써 훨씬 균형 잡힌 리듬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어는 가급적 균형에 맞는 리듬을 선택하는 것이 특징인데, Quirk등(1985)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One principle at work here appears to be a principle of rhythmic regularity : eg the dactylic rhythm of ' ladies and gentlemen', and the trochaic rhythm of ' men and women' are preferable to the less balanced rhythm of 'gentlemen and ladies' and ' women and men'<sup>6)</sup>*

이 같은 영어 리듬의 규칙성은 앞에서 본 구 (phrase) 단위를 넘어 문장 속에서도 지켜지는데 "My boy is tall." 이란 문장을 보면 약강약강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영어의 올바른 리듬은 문장 속의 강세 음절과 비강세 음절의 연속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음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문장의 억양은 기본적으로는 문장 속의 강세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4. 억양의 다양한 기능

억양은 영어에서 의미 전달 상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의 억양은 보통은 성조 그룹의 맨 마지막 내용어에 강세가 붙는 형태가 되고 있으나 화자의 의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영어의 억양은 소리의 높이 변화이기 때문에 통사적으로는 애매한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법적 기능 (grammatical function) 을 갖는다. 또한 영어의 억양은 그것을 달리함으로써 진술을 한다거나 질문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6) Randolph Quirk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Longman, p. 971.

또 화자의 태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역할(attitudinal function)을 하고 있으며, 문장의 범위를 넘어 전언(message)과 관련된 언어 구조의 양상을 언급할 수 있는 담화적 기능(discourse function)이 있다. 게다가 억양에 의해 화자를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적 기능(indexical function)이 있다. 여기서는 억양의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 1) 정보적 기능

문장내의 어떤 단어를 상승조의 억양으로 발음하면 그 단어는 새로운 정보 초점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하강조의 억양으로 발음하면 이미 대화자간에 서로 알고 있는 구 정보임을 알 수 있다.

(11) a. I saw a MAN in the garden.

b. I SAW a man in the garden.

위의 예문 (11 a) 와 (11 b)를 비교해 보자. (11 a) 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혹은 ‘너는 누구를 보았느냐?’ 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11 b)는 ‘너는 정원에서 어떤 남자의 소리를 들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11 a) 와 (11 b) 는 문맥상 서로 다른 정보 구조를 갖는다. 발화 (11 a)는 이론적으로 모두 신정보인데 비해 (11 b)는 ‘a man in the garden’는 구정보이며 ‘saw’가 청자에게 신정보이다.

#### 2) 발화 지속 판단 기능

억양을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발화가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자가 여러 개의 물건을 나열하여 말할 때 , 그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청자는 소리의 음도가 낮아짐을 보고 알 수 있다. 만일 대화 상대자의 목소리가 상승조로 가는

데도 여러분이 말을 꺼낸다면 남의 말 가운데 끼게 되어 방해가 되는 느낌만 줄뿐이다. 다음 문장의 억양이 그 좋은 예이다.

(12)

a. There will be dancing and singing and games.



b. There will be dancing and singing and g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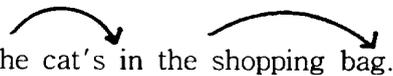
위 문장을 (12 a)처럼 발화하면 화자는 자신의 할 말을 다 끝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2 b)처럼 발화하면 그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이 억양은 화자의 얘기가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중간에 끼여들어 말을 하게 되면 화자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결과가 된다.

### 3) 문장 구조 이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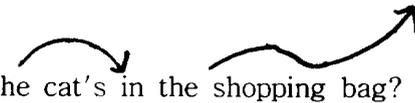
억양을 달리하면 영어 문장의 종류도 달라진다. 말미 하강조의 억양형태로 서술문, 명령문, wh-의문문을 나타내며, 상승조의 억양은 yes/no형 의문문과 청유형에 쓰인다.

(13)

a. The cat's in the shopping bag.



b. The cat's in the shopping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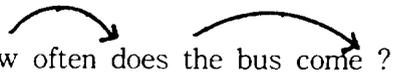


그러므로 (13 a)처럼 발음하면 서술문이며, (13 b)처럼 문장 말미에 갈수록 상승조로 발화한다면 청자로부터 답변을 원하는 의문문임을 나타내준다.

또한 wh-의문문은 대개 하강조의 억양을 취하나

(14)

a. How often does the bus come ?



b. Can you tell me how often the bus comes?

간접의문문의 경우는 말미에 상승조 억양으로 나타난다.

#### 4) 문법적 기능

이 기능은 억양이 통사 구조의 애매성을 없애 주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문장을 보자

(15) a. They are [ cooking apples].

b. They [are cooking ] apples.

이 두 문장은 겉으로 볼 때 통사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의미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5 a)에서는 cooking에 성조 강세가 있으며, (15 b)에서는 맨 마지막 내용어인 apples에 성조 강세가 있으므로 억양을 제대로 구사했을 때에는 위 두 문장의 통사 구조와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즉, (15 a)는 명사구로서 '요리용 사과들'이란 의미이며, (15 b)는 동사구로서 '사과를 요리하고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오랫동안 통사론에서 애매모호한 구조로 인식되어 온 'old cars and buses'란 구조가 억양을 달리함으로써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를 설명 할 수 있다. 즉, 통사 구조로는 이 구가 차들과 버스들이 낡은 것인지 아니면 차들만이 낡은지 애매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애매성은 억양을 달리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 5) 태도적 기능

억양은 영어로 의사소통시 의미를 전달하는 중심적인 역할과 함께 화자의 태도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억양의 기능에 대하여는 영어 학습 과정에서 그 역할이 지대하다 하겠으나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진

면이 있다.

다음 두 쌍의 문장을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비교해보자.

(16)

a. That's GREAT.

b. That's GREAT.

c. Good MORNING

d. Good MORNING

(16 a)처럼 말하게 되면 화자는 흥분했다거나 행복하다거나 또는 기분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16 b)처럼 말하게 되면 화자가 슬퍼하거나 속을 터놓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16 c)는 기운차고 친절한 것인 반면에 (16 d)는 틀에 박히고 형식적임을 나타낸다.

이 밖에 부가의문문의 경우도 억양을 달리하면 화자의 감정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George is a lawyer, isn't he?' 란 문장의 끝 부분을 하강 억양으로 발음하게 되면 확신을 구하는 것이 되지만, 상승 억양으로 발음하면 진정으로 의심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 억양의 태도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소리의 크기(loudness)와 템포(tempo)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노하거나 흥분했을 때에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고 빠르게 말하지만 기분이 우울하거나 당황할 때에는 더 낮고 느리게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6) 담화적 기능

억양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시 상대방의 말에 어

편 억양으로 대답하느냐에 따라 담화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의 교환 상황을 보자.

(17) a. doctor : It's DRY skin, ISn't it?

patient : MM

b. doctor : It's DRY skin Isn't it

patient : MM

(17 a)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중간 기조(mid key)의 층위로 끝나는 질문에 그와 비슷한 중간 시작 층위로 대답하고 있어서 담화 참여자로서 고분고분하다(compliant)는 행동을 보여 준다. 반면에 (17 b)는 그 대답을 높은 기조(high key)로 함으로써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 7) 지표적 기능

이 기능은 억양에 의해 화자를 개인 또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 특이한 억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이 달라도 억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도사, 행상인들의 억양은 일반인의 억양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 8) 의미 변화 기능

억양이 갖는 이 기능은 의사소통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아래 예문을 통해 보면 문장내의 단어는 모두 똑 같으나 어느 단어에 소리의 고저 (pitch)를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전달되는지를 볼 수 있다.?)

---

(18) a. I를 강조할 때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Someone ELSE said it.

It's true that somebody said it, but I wasn't that person.

b. didn't을 강조할 때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That's not true at all.

Someone has accused me and I'm protesting my innocence.

c. he를 강조할 때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I think someone ELSE took it.

I think someone stole the money, only not the person you suspect did it.

d. stole을 강조할 때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Maybe he just borrowed it.

I agree that he took it, but I think his motive was different.

e. the를 강조할 때

I didn't say he stole THE money, but rather some other money.

We agree that he stole some money, but I don't think it's this money.

---

7) Ann Cook(1991), *American Accent Training*, New York : Matrix. pp. 8-9.

### Ⅲ. 교실에서의 억양 지도 활동

최근 영어교육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활동 중심(activity-centered)의 기법을 교실에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활동(activity)이란 Brown (1994)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사실상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교실 속에서 부여받는 과제(tasks)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영어를 가르칠 때 활동 중심의 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은 행동함으로써 흥미를 느끼며 잘 배울 수 있다는(learning by doing) 의사소통의 원리를 실천하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영어 교육의 이론적 발전에 따라 최근 영어의 네 기능을 지도하거나 발음, 어휘, 문법 등을 가르칠 때에도 활동 중심의 기법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본 장에서는 영어의 억양을 활동 중심의 기법을 적용시켜 지도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 1. 기본 억양 형태 지도

영어에 있어서 억양은 문장의 종류나 문맥에 따라, 사람의 태도나 감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억양을 잘 알지 못하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억양유형을 습득하게 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억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억양형태는 '상승 하강' 유형이다. 서술문, 명령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등에서 발견되는 이 형태는 음도가 문장 주요 강세에서 올라갔다가 남은 문장 부분에서 내려온다. 음도가 내려올 때는 대부분 화자의 말이 끝났다고 인식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상승 유형에서는 소리의 음도가 주요 강세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계속 올라가는데 yes/no형 의문문과 제안의 뜻의 문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억양은 종종 의심하거나 어떤 정보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이러한 영어의 기본적 억양들을 지도하는 활동으로는 색카드(color card)를 이용한 인터뷰(interview) 기법과 추측하기(guessing game)를 들 수 있다.

먼저 색 카드를 활용하여 어떻게 억양 지도를 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교사는 학습자에게 모두 색 카드를 나누어주고 영어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는다. 교사가 발문하는 문장의 억양이 “상승하강”유형이면 하나의 색 카드를, 상승유형이면 다른 색 카드를 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인터뷰(interview) 장면을 재현해 보도록 할 수 있다. 두 학생이 역할을 나누어 그중 한 사람은 면접자가 되고, 나머지 사람은 응답자가 되어 각각의 질문과 대답에 어울리는 억양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접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상승조의 억양으로 던질 수 있다.

(19)

a.  What's your name?

b.  Are you married ?

c. Can you speak English ?

d. Would you shut the window ?

e.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

위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대부분 하강조의 억양으로 답하게 된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되는 하강조 억양은 상대방에게 단조로움을 줄 수 있

으므로 몇 가지 부가적 표현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20) a. And where do you live?

In Nottingham, as a matter of fact.

b. Have you lived here long ?

Nearly a year, surprisingly.

응답자가 자신의 대답 다음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in fact, actually, really, if you know what I mean, I'm afraid, as a matter of fact, to be honest with you, surprisingly, I think.

추측 게임(guessing games) 역시 의문문의 억양들을 연습하는데 유익하다. 교사가 상자에 여러 개의 물건을 준비하거나, 혹은 물건의 이름이 적힌 단어 카드를 그 안에 담아 놓고 학생들에게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도록 한다. 학생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그 억양이 자연스러운지에 유의하여 올바른 억양을 지도하면 되는 것이다.

(22) a. What's in the box ?

b. What have I got in my bag ?

c. Is it a ..... ?

d. Have you got a ..... ?

교실에서 학생들이 즐겨 하는 게임 중 스무고개(twenty questions)도 의문문의 억양 연습을 위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학급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떤 물건을 생각하고 나머지 학생이 그 물건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20개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이 때 질문은 모두 Yes-no가 대답이 되는 질문이다. 하나 하나 질문을 거쳐가면서 학생들은 그 물건을 찾는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다.

(23) Q : Who am I?

S : Are you an animal?

T : Yes.

S : Do you have wings?

T : Yes.

S : Can we see you here?

T : No.

S : Where can we see?

T : In the front yard of the farmhouse.

S : Do you have four legs?

T : No.

S : What color are you?

T : Yellow.

S : Do you lay eggs?

T : Yes.

Answer : Chicken.

기본 역할들 연습을 위해 학습자에게 여론 조사(opinion poll)를 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편성한 다음 각 집단에 여론조사를 위한 한가지 주제 카드를 준다. 각 집단은 그 그룹 카드에 관한 지시사항을 읽고 그 주제에 관해 던질 질문을 몇 개 마련한다. 각 집단의 구성원은 질문이 담긴 면접용 카드를 준비하고 자기 것을 먼저 기

록한 후 다른 집단의 구성원과 인터뷰를 하여 그 결과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올바른 억양으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6개의 주제와 더불어 6개의 조를 편성한 후 각 집단의 모든 구성원은 절차에 따라 면접용 카드를 준비토록 하고 상대방과 정확한 억양 유형을 사용하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후 다시 원래의 집단으로 돌아와 인터뷰한 자료를 토론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발표하면 활동 속에서 억양을 연습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활동과 관련된 질문과 면접카드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sup>8)</sup>

(24) Food - <Breakfast>

- a. Do you have breakfast every morning ?
- b. What food do you like ?
- c. What drink do you usually have for breakfast?

BREAKFAST			
What do you usually have for breakfast?			
	NAME	FOOD	DRINK
1	chulsoo	cereal, toast and marmalade	orange juice, 2cups of coffee
2			
3			
4			
5			
6			

8) F. Klippel (1995), *Keep Talking* ,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7.

다음으로 여러 개의 단어가 나열되는 경우의 억양 연습을 위한 활동으로 문장 이어가기 활동(sentence - building activities)이 있다. 예를 들면 교사가 I went to the market and I bought .....을 제시한 후 처음 학생은 하나의 단어를 말하게 하고, 그 다음 학생은 앞서 사람이 말한 단어에다가 다시 단어를 첨가해서 말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하나의 단어가 추가될 때 상승조의 억양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단어에 이르러서는 하강조로 문장을 마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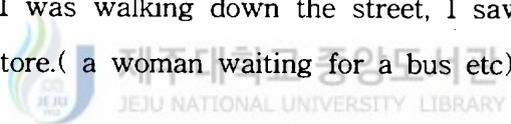
(25) a.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_\_\_\_\_, \_\_\_\_\_, \_\_\_\_\_.

b. Three colors I like are \_\_\_\_\_, \_\_\_\_\_ and \_\_\_\_\_.

c. You should bring \_\_\_\_\_, \_\_\_\_\_ and \_\_\_\_\_.

이 활동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응용될 수 있다. 좀 더 높은 수준에 달한 학습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변형된 문장을 구성하며 억양을 지도할 수 있다.

(26)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a man breaking into a store. ( a woman waiting for a bus etc)



## 2. 의미 변화 기능 이해 지도

같은 단어로 연결된 문장일지라도 문장내의 어느 단어에 높은 소리의 변화를 두느냐에 따라 그 문장 뜻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억양이 갖는 이 기능이야말로 의사소통에 있어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를 지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습자에게 그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가 적혀진 평가지를 나누어준 후 교사가 읽는 문장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중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그 억양에 따른 의미를 찾아 답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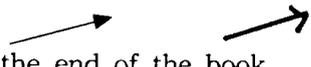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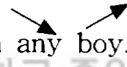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문장 중에서 교사가 읽게 되는 문장의 억양에 맞는 답을 고르는 활동이다.

- (27) a. The speaker is stating that this is the end.  
b. The speaker is asking whether this is the end.

- (28) a. She isn't dating anyone.  
b. She's choosy about who she dates.

- (29) a. I don't give the orders, I just do what I'm told.  
b. I don't work anywhere else.

이 활동을 위해 교사가 읽게 될 문장의 억양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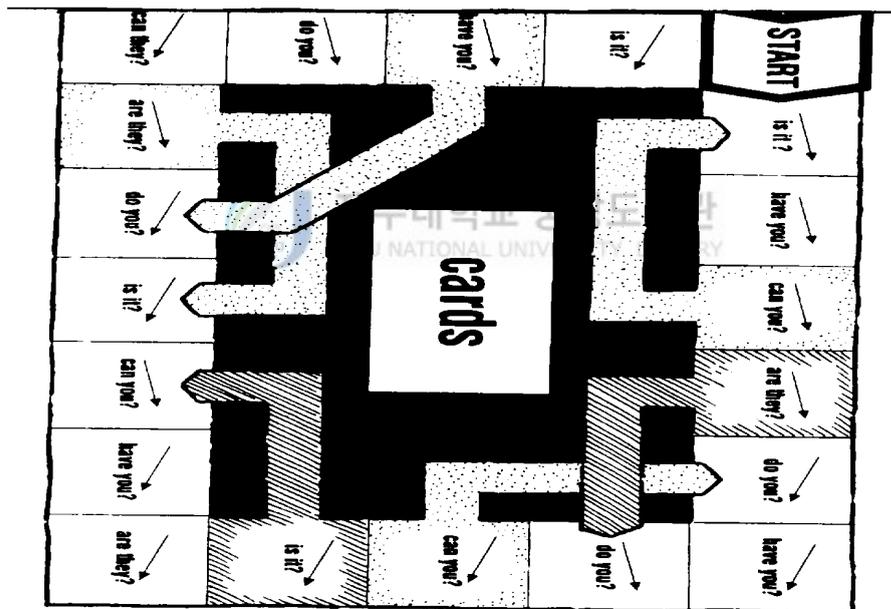
- (30) a.   
This is the end of the book.  
b.   
She doesn't go out with any boy.  
c.   
I only work here.

(30 a)처럼 문장을 읽게 되면 학습자는 (27 b)를 선택해야 하고, (30 b) 같은 억양형태로 발음하면 (28 b)를 골라야 하며, (30 c) 처럼 발음하면 (29 b)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억양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또 다른 경우의 하나로 부가의문문을 들 수 있다. 문장말미에 부가적으로 의문문을 덧붙임으로 해서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말에 동의해 오기를 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 문장은 하강조의 성격이나 후자는 상승조의 유형을 띄게 된다.

부가의문문의 억양연습을 위한 바람직한 활동으로 억양 영토 확장 게임(intonation monopoly)이 있다. 서너 명의 학생들이 문장이 적힌 여러 장의 카드를 차례로 뽑으면서, 그 카드에 쓰인 문장의 의미에 맞도록 올바른 억양으로 읽게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장과 그 뜻이 적힌 카드들을 책상의 가운데 뒤집어 놓는다. 학습자들은 차례대로 카드를 뽑아 그 카드에서 요구하는 부가의문문을 생각한 후 바른 억양으로 상대팀의 학습자들에게 말한다. 이 때 발화된 부가 내용이 맞을 경우 활동은 계속 앞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본래의 출발지점을 세 바퀴 먼저 도는 팀이 이기게 된다. 이와 같은 식으로 억양을 지도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 1>에 잘 나타나 있다.<sup>9)</sup>

<그림 1> Intonation monopoly



9) Mark Hancock (1995), *Pronunciation Gam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5.

You don't think I should wear formal clothes,	You don't think we should take a bottle of wine,	There's no sugar, but you don't take sugar in coffee,	You don't do much to help.
That dog's not very clever,	This music's not very interesting,	The music's not too loud for you,	It's not very nice weather,
You live in Hope Street. That's not the one off High Road,	The shoes I bought you aren't too small for you,	How's your headache? It isn't getting worse,	That's not a very good idea,
Those flowers aren't very pretty,	These gloves aren't very warm,	These aren't the keys you're looking for,	The vegetables aren't too well done,
My dogs aren't annoying you,	I hate the name Sue. Oh! Your name's not Sue,	Those earrings aren't very nice,	Teachers aren't very well paid,

억양이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 밖의 경우로 선택의문문을 들 수 있다. 제 2장에서 밝힌 바 있듯이, Which do you like, coffee or tea? 와 같

은 문장에서 처음 단어 coffee를 올리고, 다음 단어 tea를 내려 읽으면 화자는 청자에게 본인이 제안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미 청자가 디저트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일 coffee와 tea 두 단어 모두를 올려 발음한다면 화자는 청자에게 디저트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른 채 묻는 것이 된다.

선택의문문의 억양 학습을 위해서는 문장들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녹음한 뒤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문장의 억양을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시해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억양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 (31) a. Can I bring a salad or dessert or some wine?  
b. Sure, whichever is easiest for you.  
c. Would you enjoy seeing a movie or a play?  
d. A play sounds nice.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끼리 조를 편성하여 억양 연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원어민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들을 때 한국어와의 차이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손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동작을 직접 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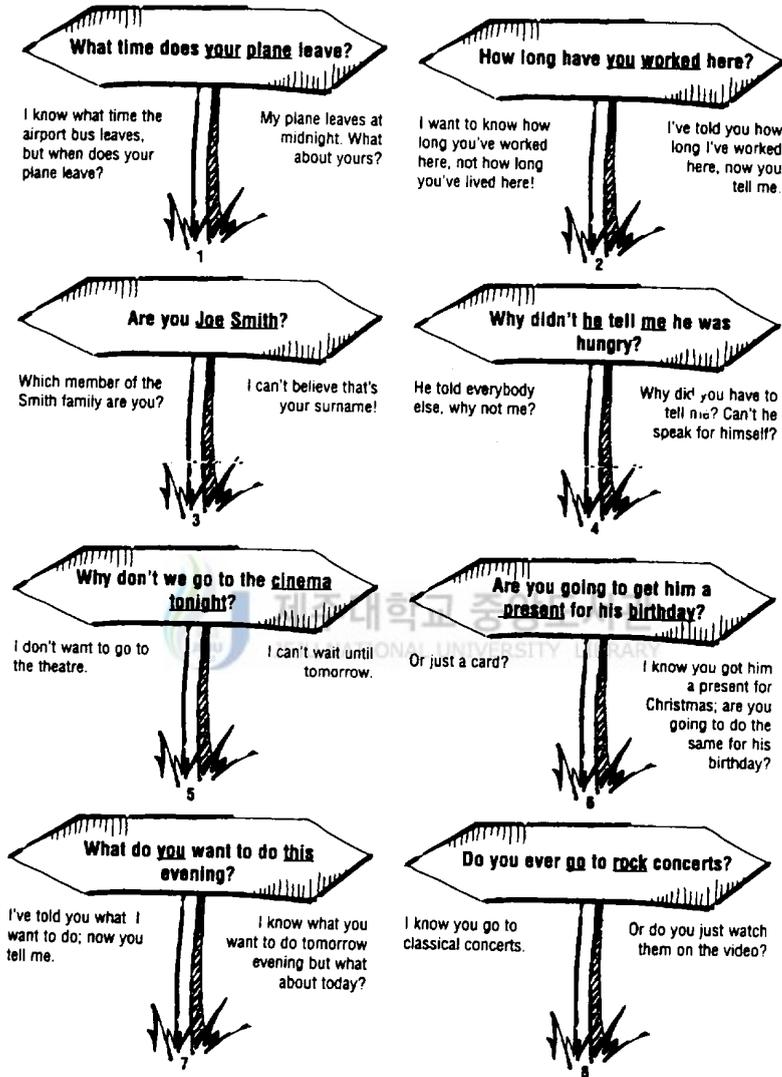
화자가 문장중의 어느 단어에 강세를 두느냐에 따라 문장 뜻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활동으로 억양 찾기(intonation directions)가 있다. 예를 들어

"Why don't we go to the cinema tonight?"의 경우 이 말을 할 때 tonight에 강세를 두고 말한다면 그 말은 "I can't wait until tomorrow."의 뜻이 되며, cinema에 강세를 둔다면 "I don't want to go to the theater"의 뜻이 된다. 이런 억양 찾기 활동을 어떻게 실시하느냐를 보도록 하자.

학생들에게 그 문장이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설명한 후 교사가 그

문장의 줄친 부분 중 하나를 강세를 두어 읽으면 학생들은 그 문장의 뜻을 표에서 찾는 것이다. 이 활동의 지도를 위한 예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Intonation directions



### 3. 정보초점 찾기 지도

영어 문장은 늘 강세 음절과 약세 음절이 반복되지만 학습자들은 문장의 어느 부분을 두드러지게 발음할 것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한다. 보통 영어 문장 내에서 내용어인 명사, 동사, 형용사는 강세를 받고, 반면 기능어인 전치사, 접속사, 관사들은 강세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어 중에서도 문장 끝에 위치하는 내용어에 제일 큰 강세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자는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의외의 단어에 강세를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어가 강세를 받는 이유를 보면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줄일 수 있다.

첫째, 문장의 강세는 이미 청자가 알고 있는 구정보 내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인지에 따라 다르다. 즉, 새로운 정보일수록 강세를 받는다. 예를 들어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보자.

(32) A : Who borrowed my eraser ?

B : I borrowed it

위 대화에서 화자 A의 말에서는 eraser 가 강조되지만 화자 B의 말에서는 I 가 강조될 뿐 나머지 borrowed it 은 강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문장에서는 'eraser'가 신정보이며, 둘째 문장에서는 'I' 가 신정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장의 강세는 문장중의 대조를 보이는 두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혹은 비교하기 위해 그 단어에 강세를 둔다. 다음 두 문장이 그 좋은 예이다.

(33) She **LIKES** married life, but her husband **HATES** it.

I wasn't accepted at Harvard, but **MY BROTHER** was.

셋째, 부정어인 no, not, never 등에는 강세를 두지 않지만 조동사와 부정어가 축약이 되면 강세를 둔다. 예를 들면, The rain **DIDN'T** affect his

plans.에서 didn't 에는 평소와는 달리 강세를 받게 된다.

그러면 교실에서 영어 문장의 어떤 부분에 강세를 두어 발성하도록 해야 자연스러운 억양을 유지하게 되는지를 보기로 하자..

교사는 학습자에게 승객과 택시기사의 아래 대화 내용을 듣고 어느 단어에 강세를 두는지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34) P : Follow that car !

D : Which car? ('which' is the focus...'car' is now old information)

P : The white one.

TD : Which make white one ?

P : The Ford, the white Ford!

TD : I guess you mean the white one.

P : Lemme outta here !

위 대화에서 택시기사의 "which car?" 란 발화에서는 "car" 는 이미 승객의 주문에 있기 때문에 신정보인 "which"가 강세를 받는다. 그 뒤에 이어지는 승객의 말에서는 "car"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white"에 강세를 두게 된다. 이처럼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는 신정보에 속하는 부분에 강세가 두어져야 함을 지도해야 한다.

문장의 초점과 관련지어 억양을 지도하는 다른 활동으로는 조별 연습

(pair practice)을 통해 문장의 일정 부분을 강하게 읽고 대답을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기법이 있다. 즉,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문장을 말하면 그 상대자는 그 말이 a, b 둘 중에서 어느 것인지를 구분하여 대답하는 활동이다

- (35) 1. a. It's a big dog. No, it's a wolf.  
b. It' s a big dog. More medium sized
2. a. We prefer beef soup. Not stew?  
b. We prefer beef soup. Not chicken?
3. a. I think that hamburger's mine. No this one is yours.  
b. I think that hamburger's mine. Aren't you sure?
4. a. I put the keys on the desk. Not the table.  
b. I put the keys on the desk. Not in it?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학습자에게 주어진 문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적게 한 후 교사가 한 문장을 말하면 학습자가 자신의 문장을 말하도록 하는 가운데 억양을 지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교사는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에 강세를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 (36) 1. A : Lemons are sweeter than honey.  
B : \_\_\_\_\_.
2. A : You buy books in a library.  
B : No,\_\_\_\_\_.

위 활동이외에 두명의 짝을 짓게 하고 유사한 두 그림의 차이점을 찾는 과정에서 강세와 억양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새 정보에 해당하는 것일수록 울림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두 학습자 A, B가 자신이 가진 그림 설명 하는 경우를 보자.

- (37) A : There's a GIRL in my picture.  
B : There's a girl in MY picture TOO.

A : Mine's SITTING on a DONKEY.

B : Mine's sitting on a TRicycle.

A : Mine's SMiling.

B : Mine's smiling TOO.

A : Mine's wearing a DRESS.

B : Mine's wearing a Jumper and a SKIRT.

위 대화에서 대문자로 표시한 부분이 새로운 정보로 간주되는 바, 그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다.

#### 4. 대화를 이용한 지도

간단한 대화를 통해 억양을 지도하는 것이 문장 하나씩 분리 시켜 억양을 지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억양 학습의 첫 단계에서부터 음도의 변화 (pitch change)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영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지름길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대화를 통한 억양 지도 활동을 잠시 보기로 하자.

먼저 교사는 학습자에게 아래의 대화를 제시한다.<sup>10)</sup>

(38 a) He : Ready?

She : No.

He : Why?

She : Problems.

He : Problem?

She : Yes.

He : What?

---

10) C. B. Paulston & M. N. Bruder (1976), *op. cit.*, p. 108.

She : Babysitter.

이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외식을 나갈 계획이던 부부가 갑작스레 유모가 못 온다는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의 대화일 수도 있고 젊은 남자가 현재 아이들을 돌보는 어떤 여자와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이를 돌보아줄 유모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여자가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음도의 변화를 화살표로 올바르게 나타내도록 할 수 있다. 위 대화를 화살표를 이용하여 억양의 변화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38 b) He : Ready? ↗

She : No. ↘

He : Why ? ↘

She : Problems. ↘

He : Problem? ↗

She : Yes. ↘

He : What? ↗

She : Babysitter. ↘

위와 같은 활동에 익숙해진 학습자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제시하여 억양을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순서가 바뀐 문장을 바르게 배열하여 대화틀 속에서 억양을 지도하는 활동(scrambled conversation activity)을 실시할 수 있다. 즉, 학생들에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문장 꾸러미를 나누어준 후 올바른 내용이 되게 먼저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고 억양의 변화를 표시하게 하는 활동이다.

(39) conversation #1

Sure.

conversation #2

Apple?

Cup of coffee?	Starved.
Milk?	Thanks.
Pardon?	Hungry?
Black, please.	Sure?
Coffee?	Take it.
No.	

대화를 통한 억양 지도 활동의 또 다른 경우로 학습자에게 즉흥적인 대사를 말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꾸미도록 하는 가운데 억양을 지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흥미를 갖고 영어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문장의 억양을 습득할 수 있다. 가령 교사가 이야기의 배경과 간단한 줄거리를 말해주고 학습자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억양 연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로는 "The three little pigs"와 같이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 적당하다. 아래의 예문처럼 청개구리 삼형제의 내용을 대화로 만들어 억양을 지도하는데 활용한다면 영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이야기 꾸미기(story telling)를 하면서 영어에 맞는 억양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기법이다.

(40) mother : I told you that,  
                   The pool is very dangerous, isn't it ?  
 frog 1 : (to mother) I will never do that.  
                   (to brothers) Then, where can we play ?  
 frog 2 : The pool is the best place, isn't it ?

## 5. 게임을 활용한 지도

영어 학습의 성패에 관하여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정의적 영역의 한 요인은 동기(motivation)이다. 동기는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 충동, 감정 또는 요구와 필요(an inner driver, impulse, emotion, or desire that moves one to a particular action)<sup>11)</sup>이므로 영어 학습은 학습자 개인의 내적 필요와 충동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의 환경에 의해 동기화 될 수도 있다.

처음 영어를 배우는 시기는 영어공부가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영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심어주어 영어공부에 따른 흥미상실이나 실패감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게임은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는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게임의 실시에 앞서 학습자의 수준과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습자 수준을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나누어 각 수준의 학습자에게 알맞은 게임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우선 초급수준 학습자를 위해서는 게임을 하여 영어 고유의 단어 강세 및 리듬의 인식과 이에 대한 발화 연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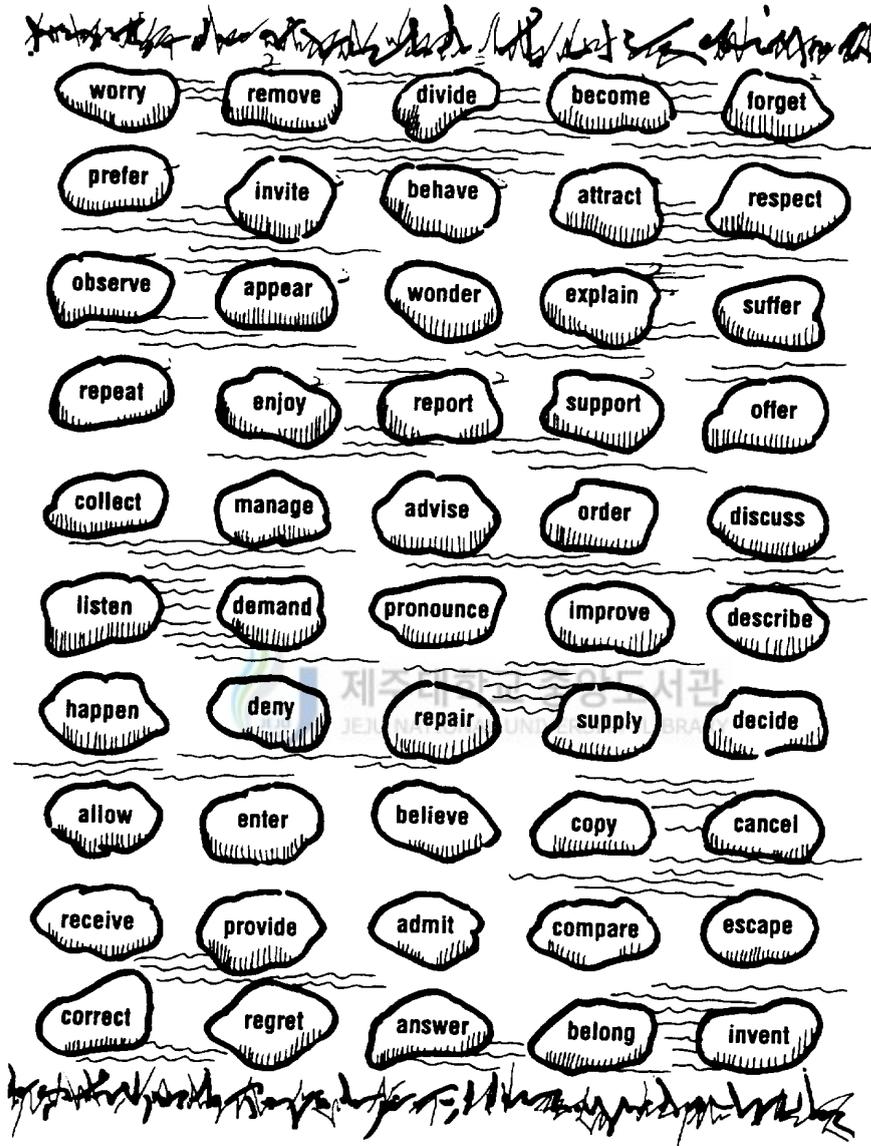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게임 중에서 징검다리 게임(stepping stones)을 예로 들어보자. 교사가 학생들이 이미 배운 단어를 칠판에 적는데 그 단어 중에는 강세가 첫 음절에 오는 것과 둘째 음절에 오는 것이 뒤섞여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출발점에 선 학생이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강독으로 가기 위해 같은 위치에 강세가 있는 단어로 징검다리를 만들면서 건너가게 되는데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

11) H. D. Brown(1994), *Teaching by principles*, New Jersey : Prentice Hall Regents.p.114.

다12)

<그림 3> Stepping stones



12) Mark Hancock(1995), *op. cit.*, p. 23.

초급 수준 학습자들을 위한 또 다른 활동으로 강세 미로 찾기(stress maze)를 들 수 있다. 이 게임은 교사가 학생 각자에게 도표가 있는 자료를 나누어준 후 같은 강세유형의 단어를 연결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이 단어의 강세유형에 자연스럽게 친숙하도록 하면 된다. 이 게임 방법을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sup>13)</sup>

한 편 초보자 학습자들에게 숫자와 관련된 어휘를 가르칠 때에 그 어휘의 어느 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지를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본다. 특히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teen 과 -ty 의 발음 구분이 잘 안될 때가 많다. 전자를 발음할 때가 후자를 발음할 때보다 더 길게 발음하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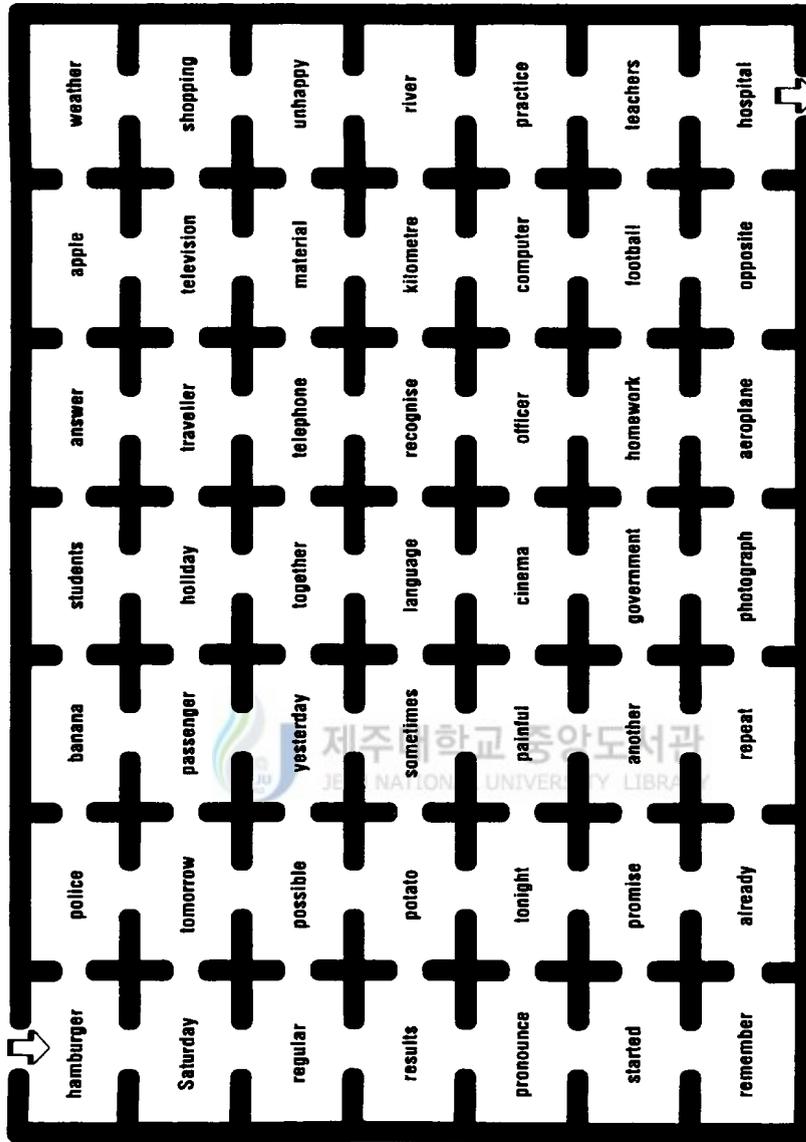
- (41) a. stress      nineTEEN / NINEty  
b. vowel      nineteen (long) / ninety (short )  
c. non-flap / flap nineTeen / nineDy

중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게임의 내용으로는 복합어 강세, 연음 및 성조 단위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어린 학습자들은 문장내의 단어를 하나씩 띄면서 분명히 발음하려고 하지만 이런 발화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 보다는 연음에 의한 발음 변화 및 성조 단위로 문장 끊어 읽는 훈련을 해야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13) *Ibid.* p. 32.

<그림 4> Stress maze



먼저 학습자에게서 자연스러운 억양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복합어의 경우 어느 곳에 강세를 둘 것인지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복합어는 처음 요소에 강세를 두지만 더러는 둘째 요소에 오는 것도 있고, 양쪽 모두에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를 차례대로 나타내면 (43 a, b, c)와 같다.

(43) a. Stress	Situation
set phrases	LIGHT bulb
street	MAIN street
nationalities	CHINESE food
nationalities	FRENCH guy
b. road designations	fifth AVENUE
place names	new YORK
institutions	Oakland MUSEUM
parks	Tilden PARK
personal names	Bob SMITH
titles	Assistant MANAGER
color	red ORANGE
numbers	twentySIX
most compound verbs	go AWAY
dollar	50 DOLLARS
c. components	SILK SHIRT
ingredients	CHERRY PIE
possessive	KING'S RANSOM

다음으로 중급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문장을 제시한 후 성조 단위로 나누어 보도록 지도함이 영어의 억양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44) 두 문장을 보면 하나의 문장을 어떻게 나누어 발음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뜻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44) a. He sold his house, boat and car.

b. He sold his houseboat and car.

(44 a) 처럼 house 와 boat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발음하게 되면 집, 배 그리고 자동차를 팔았다는 뜻이 되지만 (44 b)처럼 발성하면 지붕이 있는 배와 자동차를 팔았음을 의미한다.

학습자에게 아래 예문을 읽어 주고 그 문장의 뜻의 차이를 말하도록 하는 것도 비슷한 활동에 속한다.

(45) a. She likes pie and apples.

b. She likes pineap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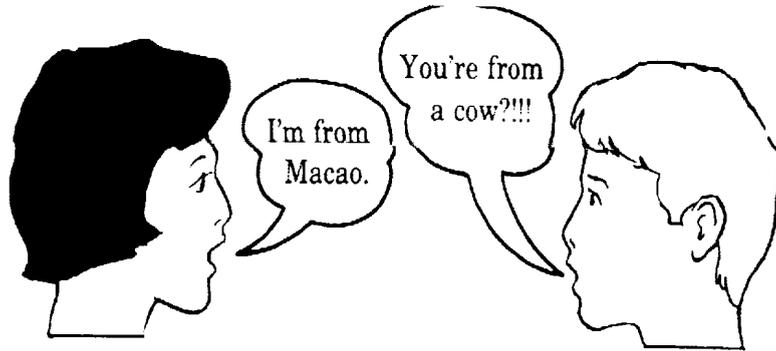
아울러 아래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성조 단위로 나누어 발음하도록 하는 것도 영어의 억양을 습득하는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다.

(46) 1. The three ages of man are : / youth, / middle age / and my  
how wonderful you look !/

2. Puccini's opera "Turan dot" requires three things : / big  
thrilling voices,/ visual spectacle / and orchestral sweep./

이어서 학습자에게 연음에 의한 음 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음에 대한 학습이 된 후에야 학습자들은 원어민의 발음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5>와 같은 상황을 보면 연음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림 5>



자연스러운 억양의 발화를 위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가장 연음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 유형으로는 자음/모음 연결체인데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에 연음이 된다. "My name is .... , pick up on the"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제2유형으로는 자음/자음의 연결체인데 앞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고 다음에 오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연음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I just didn't get the chance. I've been late twice."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제 3 유형으로는 모음/모음의 연결체인데 예문 "Go away."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제 4유형으로는 앞 단어의 끝 철자가 T, D, S, Z로 끝나고 다음에 오는 단어가 Y로 시작하는 경우 생기는 연음 현상이다. 이 제 4 유형의 연음 현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46) T + Y = CH    What's your name?

Can't you do it?

14) Ann Cook(1991), *op. cit.*, pp. 61-63.

D + Y = J      Did you see it?  
                    Could you tell?

S + Y = SH     Yes, you are.  
                    Bless you!

Z + Y = Zh      How's your family?  
                    Who's your friend?

위의 연음 현상을 연습해볼 수 있는 예문을 소개하겠다.

(47) A : Do me a favor, would you?

B : What is it? Just tell me.

A : Could you go on a blind date for me? I have an important appointment that I can't cancel.

B : Sure, my pleasure. Where is the place?

마지막으로 영어 발화에 익숙한 고급 학습자에게는 억양 지도를 위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신문 기사를 복사하여 나누어준 후 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후 의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를 따로 떼어내어 마치 전보와 같은 글을 구성하게 한다. 그런 후 서로 교환하여 각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48) witnesses-unidentified flying objects - hemlock stone -  
stapleford - anthony james -organiser UFO research

또 다른 억양 지도 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비디오를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의 영상 세대의 학습자들은 비디오 시청에 익숙해져있다. 교사가 비디오의 일부 장면을 소리 없이 보여주

어 학습자의 창의력으로 대사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장면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활동을 위해 우선 교사는 학습자에게 소리 없이 비디오 화면을 보여준 후 그들이 본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다. 그 다음 음성과 함께 비디오 클립을 다시 여러 번 반복하여 보여준 후 이번에는 그 내용 중에 파악이 되는 단어가 있는지, 문장은 무엇인지 말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단어의 강세나 문장의 억양의 잘못이 있으면 고쳐주면 되는 것이다.

한편 억양지도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제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최소로 하고 학습자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혹은 그룹별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조별 활동이나 그룹별 활동을 하여 학생들이 활기를 되찾도록 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 참여를 유도하여 억양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역할극이 도움이 된다. 교사는 이 시간에 역할극의 내용을 설명한 후 각자 조별로 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조별 발표를 통해 서로의 발화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고 어떤 억양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느끼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Kenworthy는 연극기법(drama technique)을 제시한다.<sup>15)</sup>

(49) A : What are you doing here?

B : Waiting for somebody.

A : Have you been waiting long?

B : About half an hour.

A : Why don't you sit down?

---

15) J. Kenworthy (1987),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 Longman , p. 43.

B : I'm OK. I don't mind standing.

위 대화에는 같은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억양상 끝을 올려야 하는 경우와 내려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231의 음도(pitch)유형에다가 끝을 내리는 경우등 여러 형태의 억양이 제시되고 있다. 이 때 A는 B의 행동을 의심하는 경비원이 되거나, 우연히 B를 만나게 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바, 그 배경을 호텔 로비, 정거장 또는 공원이라 보고 연극화하여 억양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6. 챗트 및 노래를 통한 지도

아이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인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 또한 노래는 딱딱한 교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그 중요성이 크다. 외국어 학습에서 노래의 효과에 대하여 Jolly (1975)<sup>16)</sup> 는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disciplines of linguistics and musicology" 라고 하면서 구두청각 방법을 사용하는 외국어 학습에서 노래는 기계적인 문형연습에서 오는 싫증을 제거해주며 나아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곡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전통적인 노래 및 챗트 이용을 권하고 중급이상의 학습자에게는 팝송이나 랩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초급 수준 학생들에게는 영어 단어 학습시 강세에 의해 그 음절이 길어지거나 짧아진다는 것을 음악의 음표를 이용하여 지도하면 바람직하다. 음표의 이용과 함께 학생들이 강한 음을 발화 할 때는 손을 높게 들게 하고, 약한 음을 말할 때에는 손을 낮추도록 하면 더욱 흥미 있게 억

---

16) Jolly, S.(1975), "The Use of Songs in Teaching Foreign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Vol. 59.

양 지도를 할 수 있다. 초급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노래로는 Oxford 사의 Let's go 교재와 Labo 의 Songbird , preschool song tape을 들 수 있다.

의문문의 억양지도를 위해서는 “Did you ever see a lassie?” 나 “Where is Thumbkin?”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어의 리듬이 노래와 밀접히 관련됨으로써 영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50) Where is Thumbkin?

Where is Thumbkin?

Here I am, here I am: How are you today, sir?

Very well, I thank you.

Run away, run away.

물론 처음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단어와 문장을 억양에 맞게 읽도록 지도하고,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반복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치지만 점차 노래와 함께 억양을 지도하면 학생들은 흥미있게 억양연습에 임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미국 구어 영어의 리듬과 억양의 습득을 위해 유용한 활동이 챗트를 따라 부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챗트에는 재즈의 템포와 박자에 따라 다양한 감정표현이 가능한 것처럼 화자의 의도와 감정의 표현을 위해 리듬, 강세, 억양이 기본적 요소가 되고 있다. 챗트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특정한 감정표현을 위한 리듬과 억양에 익숙하게 되는데 처음엔 녹음 자료를 단순히 반복하는 연습으로 시작되나 후에는 자기 나름의 패턴을 익힐 수 있게 된다. 의문문의 억양습득을 위해 적절한 챗트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51) Big Mouth John Brown

Who did you see?

I saw John.

John who?

John Brown

---

I can't hear you.  
I said John Brown.  
I can't hear you.  
I said John Brown.  
I can't hear you. ....17)



---

17) Carolyn Graham(1978), *Jazz Chant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 5.

## IV. 억양 지도 활동의 결과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활동 중심의 억양 지도 기법을 실제 중등 영어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본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필자의 억양 지도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 1.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본격적인 억양 지도 활동의 결과를 보기 전에 필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현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설문을 작성하여 평소 영어 학습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 1. 여러분의 영어 학습에 대한 평소의 흥미와 관심은?

- 1) 매우 높다 (7명)      2) 약간 높다 (11명)  
3) 보통이다 (17명)      4) 전혀 없다 (0명)

#### 2. 영어의 어느 기능에 가장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listening (5명)      2) speaking (9명)  
3) reading (11명)      4) writing (0명)

#### 3. 거리에서 낯선 외국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두려움 없이 영어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8명)

- 2) 두렵긴 하지만 물어오면 나름대로 영어로 답한다. (20명)  
 3) 적당히 미소지으며 대충 얼버무리며 그냥 지나친다. (5명)  
 4) 얼굴을 외면하고 영어를 모르는 척 한다. (2명)
4. 여러분은 자신의 영어 발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자신 있다 (3명)            2)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다 (10명)  
 3) 배울 부분이 많다 (2명) 4) 형편없다 (2명)
5.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하여 영어 발음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은?  
 1) 자주 있다 (14명)        2) 가끔 있다 (16명)  
 3) 드문 편이다 (5명)      4) 없다
6. 여러분은 영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  
 1) 소리의 높낮이를 똑같이 해서 읽는다 (12명)  
 2) 중요 부분에 소리의 변화를 주는 편이다 (23명)
7. 여러분은 영어를 말할 때 리듬과 억양이 자연스러운 편입니까?  
 1) 매우 그렇다 (2명)      2) 그런 편이다 (20명)  
 3) 고려하지 않는다 (13명)
8. 영어 리듬과 억양 학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여러 흥미 있는 교실 활동을 통해서 (22명)  
 2) 혼자 듣기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13명)

9. 영어 리듬과 억양 학습이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 1) 많이 도움된다 (15명)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18명)
- 3) 전혀 상관없다 (3명)

이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영어 학습시 발음 지도는 등한시할 수 없으며 영어의 리듬과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교실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영어의 억양을 제대로 지도하는 것이 영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 2. 억양 지도 대상과 방법

서귀 여자 중학교 3학년 학생 6명을 대상으로 영어의 억양에 대하여 평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한 여섯 명의 학생 A, B, C, D, E, F 의 대답은 어떠했는지를 보기로 하자.

1) 제 1 차 면담

질문 1) 수업 시간에 영어 억양에 대해 배운 내용 중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억양에 대해 배운 것은 별로 없다. 부가의문문을 배울 때 끝 부분을 올려 읽거나 내려 읽는다는 것을 들어 봤다.
- B. 의문문은 끝을 올린다. 그러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끝을 내린다.
- C. 의문문에 대한 억양과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올려 읽는다고 배웠다.

질문 2) 교재에 나온 억양 부분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A. 녹음 테이프를 한 번 따라 읽고 지나간다.

B. 교재의 억양 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으나 선생님이 말하거나 읽을 때 유심히 듣는 편이다.

C. 테이프를 한번 듣고 지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 선생님들이 억양에 대해서 다시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위 두 질문을 갖고 면담을 한 결과 영어 시간에 특별히 억양에 대해 많은 지도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생들은 이에 대해 교사가 억양에 관련 내용을 지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억양 지도 효과 분석

#### 1) 제 2 차 면담

이 같은 학습자의 억양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여섯 명의 학습자들에게 앞에서 고찰한 몇 가지 활동을 적용시켜 영어의 억양을 지도해 보았다. 우선 의문문의 억양 지도를 위해서는 알아맞히기 게임을 이용했다. 즉, 물건 알아맞히기, 직업 및 사람 알아내기를 시도하였다.

(52) Teacher : Can you guess who I am?

Student : Can you drive?

Do you wear a uniform?

Do you work at night?

Do you make much money?

이 활동 후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게임을 통해서 배우니까 훨씬 재미있으며, 자연스럽게 발음이 된다.

B. 내 나름대로의 질문을 만든 후 질문하게 되어 기쁘다.

C. 게임에 몰입하는 동안 많은 문장을 말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 여섯 명의 학생을 두명씩 세 팀으로 나누고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 대조 강세의 억양을 지도해 보았다

(53) My mother's name is John.

The capital of Korea is New York.

각 팀은 위와 같은 카드를 잡고 그 카드에서 틀린 내용을 파악한 후 "I don't think so. My mother's name is Mary."라고 말하는데 이 때 달라지는 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 A. 대조되는 단어에 강세를 두는 활동을 통해 녹음된 내용을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는 단어를 잘 파악하게 되었다.
- B. 영어에 대한 것 외에도 다양한 부분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
- C. 이미 한번 나온 것보다는 새로이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제 상황 즉, 가게나 식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를 만들고 역할극을 하도록 하여 억양을 지도해 보았다.

(54) w : May I take your order?

c : Yes, can we have steak?

w : Sure,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c : Rare, please.

w : Rare? sorry.

You can't eat that food here.

c : Really? Then medium, please.

w : O. K..

그 결과 학생들은 보통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억양을 자연스

롭게 익힐 수 있었다고 했으며 놀람의 표현을 위해서도 상승조의 억양을 사용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다음으로 노래를 이용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A. 노래로 배우니까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 B. 흥미도 있고 노래의 리듬과 영어의 리듬이 비슷함을 느꼈다.
- C. 노래는 모두가 좋아하기 때문에 딱딱한 내용도 노래로 배우니 재미있었다.

이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Mm"도 그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지도한 후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대화중의 올바른 억양을 말해보도록 했다. 그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5) A : Would you like some homemade muffins?

B : Mm?

A : Would you like some muffins?

B : Mm.

A : Here you are.

B : (eating) Mm!

A : I'm glad you like them I made them myself.

Would you like to try them with marmalade?

B : Mm?

A : Marmalade. They're marvelous with marmalade.

Would you like some?

B : Mm.

A : Here you are.

B : (eating) Mm!

단어 Mm을 상승조로 발음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음을, 반면에 하강조로 발음하면 'Yes'의 의미가 된다. 이 단어를 상승-하강조로 길게 발음한다면 그것은 'This is good!'을 뜻하게 된다. 이 활동을 한 후 학습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B : 하나의 단어를 말할 때에도 억양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C. 억양이 문장 뜻을 전하는데 중요함을 알았고, 이런 역할극을 통해 활동하는 것이 흥미가 있다.

D. 이 활동을 통해 억양에 의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할 때 억양도 신경을 써야 겠다.

E, F :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끝을 올려 읽는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활동으로는 학습자에게 영어와 한국어의 리듬이 다름을 인식시키기 위해 시도하였다.

(56) Kids make noise.

The kids make noise.

The kids will make noise.

The kids are making noise.

The kids have been making noise.

우선 학습자들에게 위의 각 문장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게 한다. 그런 후 비록 아래로 올수록 문장이 길어는 길지만 읽는 데는 거의 같은 시간이 걸림을 지도했다. 이 활동 후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 영어에서는 문장의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며, 정관사나 전치사는 약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B : 영어를 읽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어는 강조하고 비핵심어에

- 속하는 단어들은 짧게 읽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어느 단어를 강조할 것인지 알게 되었다,
- C : 길이가 다른 문장이 같은 시간에 읽혀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 D : 문장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은 단어의 수가 아니라 그 문장내의 강세어의 수임을 알았다. 따라서 같은 수의 강세어를 갖는 문장의 경우 비강세어들은 빨리 읽어야 함을 알았다.



## V. 결론

지금까지 영어의 구두 의사 소통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초분절음인 억양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살펴보았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실 활동을 통해 한편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영어의 억양은 소리의 높이상의 변화를 뜻하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어떤 억양을 취하느냐에 따라 전하려는 의미가 달라질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영어에서 억양을 정보적 기능과 발화가 지속되는지 판단하는 기능,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기능, 문법적 기능, 태도적 기능, 담화적 기능, 지표적 기능, 의미변화 기능 등 다양하게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억양의 다양한 기능을 인식하여 영어 발음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위주의 다양한 교실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필자는 활동 중심의 억양 지도 기법으로는 제3장에서 밝힌 바 있듯이 기본 억양 형태 지도, 의미 변화 기능 이해 지도, 정보 초점 찾기 지도, 대화를 이용한 지도, 게임을 활용한 지도, 챗트와 노래를 통한 지도가 효과적이라 주장한다.

이처럼 활동 중심으로 억양을 지도해야 타당하다는 점은 실제로 필자가 억양을 지도해 본 결과 분석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활동을 많이 하여 억양을 연습해야 영어에 흥미를 느끼며 영어다운 발음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현행 중학 영어 교재에서는 억양에 관한 설명이 별로 없으며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억양에 의해 문장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억양 지도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교실 활동을 통하여 억양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의 선정 및 그를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게임 및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명희 (1996), "영어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위한 발음지도 활동",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말숙 (1989), "억양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종훈 (1997), 「영어음운론」, 서울, 한신 출판사.
- \_\_\_\_\_ (1993),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발음 지도법", *Parnassus* vol 12,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학회.
- 류재권 (1994), "영어 노래 활동을 통한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허성은(1992), "억양과 영어교육",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종기 (1996), "영어 발음지도에 있어서 강세와 억양의 문제점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Avery, P. & S. Ebrlich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A. & S. Goldstein (1995), *Pronunciation Pair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H. D.(1994), *Teaching by Principles*, New Jersey : Prentice Hall Regents.
- Byrne , D. (1995), *Teaching Oral English*, London : Longman.
- Cook, A. (1991) *American Accent Training*, New York, : Matrix Press.
- Cruttenden, A. (1986), *Intona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uer, R. M. (1993), *Accurate English*, New Jersey : Prentice Hall Regents Englewood Cliffs.
- Gimson, A. C. (1980),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Edward.

- Graham, C. (1978), *Jazz cha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Griffiee, D. T. (1992), *Songs in Action*, Prentice Hall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aching.
- Hancock, M. (1995), *Pronunciation Gam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en, S. A. & P. E. Grogan(1992), *Sound Advantage : A Pronunciation Book*, New Jersey : Prentice Hall Regents Englewood Cliffs.
- Jolly, S.(1975), "The Use of Songs in Teaching Foreign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Vol. 59.
- Jones, D. (195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 Heffer & Sons.
- Kenworthy, J. (1992), *Teaching English pronunciation*, London : Longman.
- Klippel, F. (1995), *Keep Talking*,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roy, C. (1995), *Pronunciation*, Cambridge: Oxford University Press.
- Paulston, C. B. & M. N. Bruder, (1976),*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ambridge: Winthrop Publishes.
- Phillips, S. (1994), *Young learners*, Oxford University Press.
- Quirk, Randolph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 Longman.
- Sheeler, W. D. & R. W. Markley(1991), *Sounds and Rhythm*, New Jersey : Prentice Hall Regents, Englewood Cliffs.
- Taylor, L. (1993), *Pronunciation in Action*, Prentice Hall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aching.
- Wong, R. (1987). *Teaching Pronunciation*, New Jersey : Prentice Hall Regents Englewood cliffs.

---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English Intonation  
through Learner-centered Activities.\*

Lee, Gwang-ja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ise more desirable and effective teaching techniques to teach the English Intonation in order to improv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English learners in Korean English classroom.

Recently in second language instruction, Teaching pronunciation is considered as a peripheral. Also some teachers think it is difficult to teach pronunciation as a nonnative speaker.

Pronunciation is an integral part of language learning. The abandonment of pronunciation instruction has been based on the mistaken belief that pronunciation means only sounds, and on the failure of such limited focus to affect learner's overall pronunciation.

The scope of pronunciation is much broader than an inventory and description of sounds. It embraces the elements of rhythm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8.

---

and intonation, which function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Thus, any learner with a goal of learning English for communicative purposes needs to learn both the rhythm and intonation.

In this thesis, we will study many functions of intonation. Intonation has both an accentual function and a grammatical function which explains its usual syntactic ambiguity. It also has attitudinal function which indicates speaker's emotions and feelings. Furthermore, it has informational and discourse functions. As a result, through intonation, one can discern whether a man is the member of the community or not.

In the third chapter, we will attempt to discover a few desirable methods for teaching English intonation through student-centered activities in the classroom. First I suggest an idea for teaching students about the basic pattern of English intonation through games and pair works. Then I recommend activities which teach students to recognize informational focus, using mini-dialogues and songs.

Intonation has meaning. So in order to truly communicate, learners must be able to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intonational contours

After teaching my students to understand English intonation, I conducted many personal interviews with them. From these personal interviews, I have become certain that my ideas are helpful to them.

In the conclusion, we, English teachers must have an interest in teaching intonation and then we must try to devise proper and efficient methods to reach the goal.